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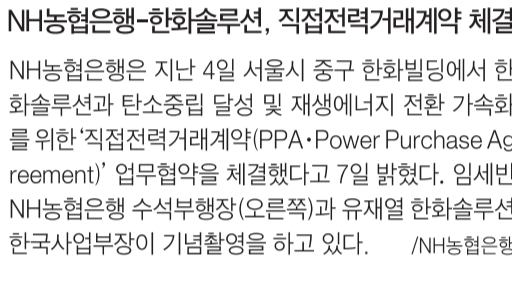
포스코그룹,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전개

포스코그룹은 연중 최대 봉사활동인 '2026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Global Volunteer Week)'를 진행한다. 7일 밝혔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9일간 이어지며 국내외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봉사주간 첫날 '안심(安心) 마을' 조성 활동에 참여했다. /포스코그룹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협약식

NH농협은행-한화솔루션,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화솔루션과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오른쪽)과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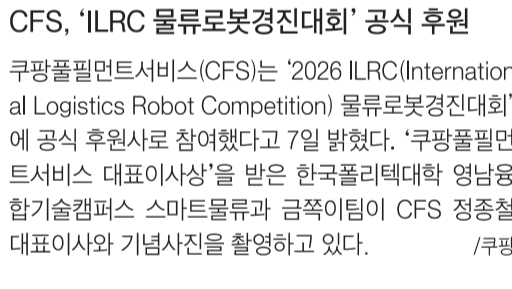
NH농협은행-한화솔루션,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창립 100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발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상생과 소통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노인복지관과 충주시 푸드마켓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충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유한양행



CFS, 'ILRC 물류로봇경진대회' 공식 후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6 ILRC(International Logistics Robot Competition) 물류로봇경진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금쪽이팀이 CFS 정종철 대표이사와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쿠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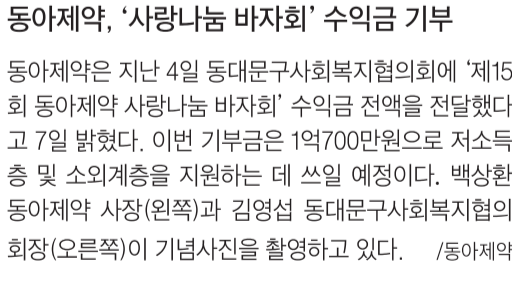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동아제약은 지난 4일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제15회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1억700만원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왼쪽)과 김형섭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광동제약이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며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7일 서울 마포 소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6 무한도전 런 위드 쿠팡플레이'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추격전을 실제 도심에서 펼치는 축제다. 참가자들은 경찰팀과 도둑팀으로 나뉘어 기록 경쟁을 벌인 가운데, 무한도전 주인공 박명수, 정준하, 하하, 광희 등 유명 아티스트가 함께해 유쾌한 분위기를 높였다. 광동제약은 참가자들에게 '비타500' 인 9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박종학(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6대회장)씨 별세, 조옥환씨 남편상, 박상순·주현·수현씨 부친상=6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02-2650-5121



BGF리테일-조리과학고, 상품개발 등 산학협력

BGF리테일은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상품 공동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GF리테일 임형근 상품본부장(왼쪽 두번째)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손민호 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인 9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박종학(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6대회장)씨 별세, 조옥환씨 남편상, 박상순·주현·수현씨 부친상=6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02-2650-5121

부음 ▲여정자씨 별세, 김상욱(H TA 대표)·상부(세계은행 부총재)씨 모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

인 9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박종학(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6대회장)씨 별세, 조옥환씨 남편상, 박상순·주현·수현씨 부친상=6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02-2650-5121

마사회, 해외 교류경주 확대... 韓 경마 우수성 알린다

홍콩·프랑스·말레이시아 등 교류 한국식 치킨·김밥 등 K-컬처 전파



지난 5월 하순 홍콩 자키클럽 해피밸리 경마장에서 열린 'KRA 트로피 교류경주' /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올해 해외에서 친선경주를 잇따라 개최하며 한국문화 전파에 나섰다. 지난달 홍콩에 이어 이달에는 프랑스와 말레이시아에서 교류경주 행사를 기획했다.

외국 경마선진국과 함께 진행하는 친선 교류경주가, 현지에 K-컬처를 전파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지난달 하순 홍콩 자키클럽(HKJC) 해피밸리 경마장에서는 'KRA(한국마사회) 트로피 교류경주'가 진행됐다. 현지 주최 측은 당일 행사의 메인프로그램을 한국 테마로 운영했다. 현지 팬들이 참여하는 K-팝댄스챌린지를 비롯해 관람석 주변 맥주기둥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김밥 등이 소개됐다. 특히 현지 선호도가 높은 한국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팝업부스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6일 홍콩 사턴 경마장에서 열린 국제경주 'FWD 챔피언스 데이' 행사에는 방문객 4만여 명이 다녀갔다. 개막행사의 경우 K-팝스타 '화사'의 공연 등이 인기를 끌었다. 홍콩 경마는 연매출이 1380억 홍콩 달러(27조 원)에 달하는 등 일본·호주

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달에는 프랑스에서 KRA 트로피 경주, 말레이시아에서 교류경주가 예정돼 있다.

마사회는 세계 각국과의 교류경주를 통해서 우호를 다지는 한편, 현지 경마계에 한국 경마의 역동성과 함께 문화 예술의 유기적 결합을 선보이는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희중 한국마사회 회장은 "글로벌 파트너들이 한국 경마를 존중해 우리 문화와 연계한 확대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류경주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와 한국 경마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유한양행, 기부활동 등 ESG 경영 강화

창립 100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발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상생과 소통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노인복지관과 충주시 푸드마켓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충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기부 활동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에서 16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김선태와도 협업한다.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한 스타 크리에이터와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선태가 직접 유한양행 본사와 연구소를 방문해 기업 역사, 연구개발 현장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오는 21일까지 유한양행 공



'유한양행X김선태' /유한양행

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는 고객 감사 행사도 진행해 추가 증정, 특가 혜택 등을 선보인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창립 100주년은 지난 100년간 유한양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들과 함께 만든 뜻깊은 역사"라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이피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주요 사업성과·재무실적 등 다뤄

에이피알이 글로벌 수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K뷰티' 중심의 책임경영 전략을 펼친다.

에이피알은 창사 후 처음으로 '2025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 성과, 재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대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도 공유했다. 에이피알은 제품 개발, 마케팅, 고객관리(CS) 등 뷰티 산업 전반을 아우

르며 임직원 역량 개발, 리더십 육성, 글로벌 인재 확보 등 인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 및 사회 분야에서 안전·보건, 공급망 등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했다. 보고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ESG 지표도 반영했다. /이청하 기자

UPA, 안전관리·동반성장 평가 최고등급

울산항만공사(UPA)는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또 동반성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올해 발표한 '2025년도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3년 연속이다. 전국 공공기관 104곳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만큼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하역안전지수 운영 및 전국 무역항 확대 노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제도 확대 ▲항만안전 학습회의 개최 등에

서 높게 평가받았다. 안전문화 확산 및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이나 수중 점검 등 현장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4년 연속 최고등급이다. 울산지역에서 4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가 유일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웨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마무리

코웨이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서울 구로구 및 금천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회 코웨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가 만드는 지구'를 주제로 지난 5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았으며 관내 초등학교생 총 30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대상에는 금천구 금나래초 6학

년 김은찬 학생이 선정됐다. 작품명은 '지구를 다시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으로, 환경 파괴로 상처 입은 생태계를 비어 있는 퍼즐 조각 너머의 풍경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에는 ▲박지우(6학년) ▲정이름(1학년) 어린이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김윤슬(5학년) ▲문예주(5학년) ▲손에나(2학년) ▲정이안(3학년) 어린이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bada@